

요시노 민화 지도

YOSHINO FOLKTALES WALKING MAP © 2014

나게시노타키(폭포)



3 개를 기르지 않는 마을
구보가이토



4 은혜 갚은 늑대
와시카

히가시요시노무라(마을)

5 아리도시묘진 신사
오무라



7 고보시미즈 샘
우노카와

6 이히카의 우물
이카리



가와카미무라(마을)



8 오바가미네 산의 외발귀신
오바미네토우게 고개

오다이가하라(금)

9 가타로우의 약
쓰지도(불당)

고조시 오오토우초(마을)

1 개구리가 된 사람
요시노야마 산



2 요시쓰네가 숨은 탑
요시노야마 산



세이레이노타키(폭포)



발행 : 나라교육대학대학원 "지역과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
감수 : 다케하라 다케시게 · 아오키 사토시
작화 : 마쓰다 게이코 · 야마자키 아야노 · 아오키 사토시

国立大学法人
奈良教育大学
NARA UNIVERSITY OF EDUCATION

한 지도의 민화 장소에서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1 개구리가 된 사람

임산이 허용되는 5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많은 사람이 오오미네야마 산에 참배하러 간다. 하지만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참배를 갈 수 없었다. 오직 여름에만 갈 수 있었다.

오오미네야마 산에 참배하러 가는 길은 너무 가팔라서 깊숙이 들어가면 갈수록 길이 더욱 험해졌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험한 곳에서 참배하러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라고 말하며 참배하러 온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밭을 밟게 된 것인지, 절벽을 내려다보다가 발이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다.

문이 좋았던 것인지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 하지만 요즈음과 같이 헬리콥터는커녕 아무것도 없던 때였기 때문에 그를 구하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절의 모든 스님이 모여 상의하여 그 사람에게 "구해주길 바라다면 개구리로 변신시켜 구해주도록 하지. 그 대신 참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반드시 참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스님은 그 사람을 개구리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 사람은 개구리의 모습을 한 채로 푹푹푹푹 뛰며 절벽을 기어 올라가 살아났다.

스님들은 개구리를 자오도 불당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요시노에 있는 스님들이 모두 모여 함께 경전을 외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 덕분에 개구리는 인간의 모습을 되찾고, 참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

그 후로부터 자오도 불당에서는 7월 7일이 되면 '가에루토비(개구리 뽀)'라는 행사를 열게 되었다고 한다.



2 요시쓰네가 숨은 탐(가쿠레토우)

미나모토노 요시쓰네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동생으로 두 형제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요시쓰네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자 동생이 두려워진 요리토모는 '이렇게 아우것도 하지 않고 있다간 나도 당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국 요시쓰네는 요리토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요시쓰네는 요시노야마 산에까지 도망쳐 와서는 요시미즈 신사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곳에 '요카와 가쿠한'이라는 자오도 불당의 스님이 쳐들어왔다. 요시쓰네는 사토 다다노부에게 도움을 받아서 벵케이와 함께 오쿠센본으로 도망쳤다. 그곳에 엔노교자가 수행을 하기 위해 세운 탐이 있어, 두 사람은 그 탐으로 도망쳤다. 그래서 그곳의 탐들을 '숨은 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적들이 탐의 주변을 에워싸고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자, 요시쓰네는 탐 안에서부터 탐을 발로 차서 부수고 도망쳤다. 그래서 그 탐을 '부서진 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에 요시쓰네와 벵케이는 아타카노세키 장벽을 넘어서 동북지역의 히라이즈미라는 곳까지 도망쳤다.

요시쓰네가 숨은 탐은 수행을 위한 곳으로서 지금까지도 오오미네야마에 참배를 하러 가는 사람들 모두 탐에 들어가서 금목수행을 한다.

사람들은
요시노 길은 산 속의 숨은 탐
본래 공(호)의 거쳐였을지니
은 아비라 운켄 소와카
라는 불경을 세 번 외고 기도했다고 한다.



3 개를 기르지 않는 마을

옛날에 오야마노 왕자가 오토모노 왕자와의 싸움으로 요시노에서 구보가이토 마을로 도망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오야마 왕자는 바바카와라 라는 강가에 이르렀다. 그곳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미스키부네(배모양 나무통)를 뚫으려고 하고 있었다. 왕자는 그들에게 "지금 적들에게 쫓기고 있으니 날 좀 도와주게."하고 말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곧바로 배를 뒤집어엎어서 왕자를 그 안에 숨겨주었다. 그리고는 배 위에 재물로 쓰일 도토리야의 가루를 올려놓았다.

잠시 후 그곳에 뒤쫓아 온 적의 개들이 쿵쿵거리며 배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다. 할머니가 "이 개들은 참으로 욕심이 많은 개군요. 신에게 바칠 재물을 먹으려고 쫓다니."라며 화를 냈더니, 함께 쫓아왔던 적이 개에게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해선 안 돼!"라고 말하며 개들을 죽였다. 그 덕분에 왕자는 살 수 있었다.

그 후로부터 구보가이토에서는 개를 기르지 않게 되었다.

그 개들을 받들어 이누즈카 라는 개 무덤을 만들고, 지금은 구보가이토에 있는 구즈초등학교의 정원에 있다고 한다.



4 은혜 깊은 늑대

옛날에는 요시노에도 늑대가 살았다고 한다. 어느 달 밝은 날 밤, 늑대가 마을로 내려와 아우우우- 하고 울었다. 계속해서 울자 어느 마을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 보았다. 나가보니 늑대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늑대의 입을 벌려서 들여다보니 목에 송곳니가 걸려있었다. 아마도 멧돼지를 먹고 나서 그 멧돼지의 송곳니가 걸렸었던 모양이다.

마을 사람이 "내가 목에 걸려있는 송곳니를 빼줄 테니 대신 나를 물거나 해서는 안 돼"라고 늑대와 약속을 하고, 늑대의 목에 걸려있는 송곳니를 빼주었다. 늑대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사람의 집 앞에는 매우 큰 멧돼지가 쓰러져있었다. "이런 늑대가 가져다 준 것이 틀림없어!"라며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5 아리도시요진 신사

옛날, 영주가 "노인들은 밥만 속낼 뿐, 일도 하지 않는다. 산에 버리거라."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 마을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를 산에 버리는 것이 싫다고 하여, 집 안에 음식 저장용 구멍에다 아버지를 숨겼다고 한다. 그리고는 매일 음식을 날라서 아버지를 봉양했다고 한다.

어느 날, 이웃 나라에서 영주에게 어려운 문제를 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답을 아는 이가 없었다. 그 문제 중 하나가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구슬에 실을 통과시켜 보라'는 것이었다.

그 아들은 음식 저장용 구멍에 숨어있는 아버지에게 여쭙어 보았다. 아버지는 "그야 개미 다리에 실을 묶고 구멍 안에 넣은 뒤, 나오는 구멍에 꿀을 발라 놓으면 되지. 개미는 꿀을 쫓아갈 테니 실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야." 하고 가르쳐 주었다.

두 번째 문제는, 네모난 나무가 있어 뿌리 부분과 꼭대기 부분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뿌리와 꼭대기를 구별해 보라"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야 물에 담가보면 알 수 있지. 뿌리 부분이 더 무거우니까 좀 더 길게 잠긴단다." 하고 가르쳐 주었다.

마지막 문제는 '재로 된 밧줄을 만들어 보라'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야 별거 아니지. 밧줄에 소금을 뿌려 구우면 형태가 남는단다." 하고 말했다.

아들은 즉시 영주께 가 답을 가르쳐 드렸다고 한다. 영주는 기뻐하며 그 아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아들은 "사실은 저희 아버지를 숨겨 봉양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는 모두 아버지께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고 한다.

영주는 노인의 지혜를 인정하고는 그때부터는 노인을 산에 버리라고 하지 않게 되었다.

이 효자 아들을 모시는 곳이 바로 아리도시요진 신사이다.



6 이히카의 우물

옛날에 진무천황이 규슈에서 동쪽을 향해 오고 있을 때, 요시노야마 산을 넘어갔다고 한다.

오던 도중, 산 중턱에 큰 상나무가 있었는데 뿌리 부분에 우물이 있었다. 진무천황이 그 우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려고 하니, 우물 속에서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모두가 깜짝 놀라자 그 빛 속에서 꼬리가 달린 사람이 나와 진무천황 앞에 넋죽 엎드렸다. 진무천황이 "자네의 정체가 뭔가" 하고 묻자, 그 사람은 "저는 이 요시노야마 산에 사는 이히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천황님께 길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여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진무천황은 기뻐하며 이히카에게 길 안내를 받으며 또다시 동쪽으로 향해 갔다고 한다.

그 우물은 지금도 존재하는데, 근처에는 이비카리자산 이라고 하는 절과 이히카 라고 하는 작은 사당이 있다.



7 고보시미즈 샘

요시노의 가와카미무라 마을의 우노카와 라는 지역은 산 높은 곳에 있었다. 옛날에는 이곳에 우물이 없어서 물을 푸려면 산 밑의 다니카와 강까지 내려가야만 했다고 한다.

어느 더운 여름날에 고보대사가 여행을 하던 중, 우노카와까지 와서 어느 집에 들렀다. 그리고는 집 밖에서 "목이 갈라서 그런데 물을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할머니가 나와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곳에는 물이 없으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나무통을 들고 산 밑의 다니카와 강까지 물을 푸러 갔다. 긴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서는 대사께 물을 드렸다.

그러자 대사는 "양까지 벌벌 출리시며 물을 떠다 주시다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좋소.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드리지요." 라고 하고는 그곳에 있던 바위를 지팡이로 세 번 내리치고는 소원을 빌었다. 그러자 그 바위에서 차가운 물이 푹푹 솟아났다고 한다.

그 후부터는 마을 사람들은 다니카와 강에 물을 푸러 가지 않아도 그 샘에서 맛있는 물을 받아먹을 수 있게 되어, 더는 물로 인해 고생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 샘물을 고보시미즈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높은 곳에서 물이 솟고 있다고 한다.



8 오바가미네 산의 외발귀신

옛날, 오바가미네 산에 커다란 멧돼지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사무라이가 "그 멧돼지를 퇴치해 주지." 하고는 개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오바가미네 산 깊숙이 들어가자 개가 큰소리로 짖어대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얼룩 조릿대(糶)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등에 얼룩 조릿대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멧돼지가 웅황거리며 달려나가 꿀짜기를 건너 도망가고 있었다. 개가 멧돼지를 쫓아가자, 궁지에 몰린 멧돼지는 분해서 이를 갈며 개를 향해 다가왔다. 사무라이는 정확히 멧돼지를 겨냥하여 총을 쏘았다. 멧돼지는 총을 맞고 여기저기로 날뛰었지만 결국 힘이 빠져 쓰러져버렸다고 한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기슈에 있는 유노미네 온천에 다리를 다친 따돌이 무사가 온천치료를 하러 왔다. 그 따돌이 무사는 여관주인에게 "조용하고 다른 방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립된 방을 빌려주시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내가 잠들어있을 때에는 아무도 오면 안 되오. 들여다보아서도 안 된다고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말했기에 주인은 "이상한 사람이군" 하고 생각하여 방중에 살짝 엿보았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자고 있었던 것은 등에 얼룩 조릿대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멧돼지였던 것이다. 주인이 그걸 보고 놀라자 그가 잠에서 깨어나고 말했다.

"그렇게나 보지 말라고 말했건만, 보고 말았군. 나는 오바가미네 산에 사는 이자사오의 유형이오. 사무라이의 총에 맞고 분해서 아쩔 수가 없소. 그 사무라이의 개와 총을 손에 넣게 해주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결국, 주인은 개와 총을 구하지 못했고 이자사오의 유형은 다리가 하나인 귀신이 되어 오바가미네 산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어느 스님이 오바가미네 산에 지장보살을 모시고, 불경을 읽어 경총(무덤)을 만들고 그곳에 귀신을 가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은 "매년 12월 20일 만물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귀신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골의 20일' 이라고 하여, 그 날은 오바가미네의 액일이다. 이날 오바가미네 산을 지나가면 귀신에 억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 날 밤에 한해서 이자사오를 쓰았던 총이 건드리지 않아도 맘을 출린다고 한다. 그 총은 아미가세의 신사에 바쳐져 있다고 한다.



9 가타로우의 약

옛날에 가모의 쓰지도 불당의 뒤에 엄청난데 큰 못이 있었다. 그곳에 가타로우(갓파)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절의 어떤 스님이 방에 번소에 갔더니 가타로우가 밑에서부터 손을 내밀었다. 스님은 낯으로 그 손을 베어버리고는 도망가 버렸다.

그 다음 날 밤, 가타로우는 절에 가서 스님에게 "내 손 돌려줘!"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내 손을 돌려주면 아주 좋은 약 하나를 주지"라고 말했다. 그래서 스님은 약과 손을 서로 맞바꾸기로 하였다.

그 약이 바로 금초(錦草)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모야 라는 가게에서 그 약을 팔고 있다고 한다.

